

있네. 그저 올리브색이 감도는 창백한 미광만이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사물들을 홀로 비추고 있었지.

배가 요동치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 뱃머리를 고정시켜두었던 닻줄이 끊어진 게야. 이제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고작 뱃줄 하나밖에 남지 않자, 배는 해변으로부터 반연● 정도 떨어진 바위 위로 내동댕이쳐졌네. 우리들 사이에는 고통에 시름하며 울부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 폴이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자,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네.

“자네 죽고 싶은 겐가?”

폴은 악을 질렀어.

“구하러 가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죽어버릴 거예요!”

절망이 그에게서 이성을 빼앗은 것을 보고, 그의 목숨까지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맹그와 나는 그의 허리띠에 긴 밧줄을 묶고 그 끝을 붙잡았네. 그런데도 폴은 헤엄을 치기도 하고, 암초를 발로 박차기도 하면서 생제랑 호를 향해 뛰어나갔지. 폴은 넷 빈인가 배에 다다르리라는 기능성을 보기도 했네. 바다가 불규칙적으로 요동치면서, 사람이 걸어가서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배를 거의 물 가까이 올려주기도 했거든. 그러나 곧바로, 전에 없이 맹렬하게 되돌아온 바다는 궁룡처럼 솟구쳐 어마어마한 높이의 물기둥으로 배를 뒤덮었고, 결국 신체 앞부분을 모

---

●